

KIA, 우천 취소 15경기... 순위 싸움 '하늘'에 달렸다

T 타이거즈 전망대

KBO리그의 치열한 순위 싸움의 향방이 '하늘'에 달렸다.

비로 두 경기를 건너 뛴 KIA 타이거즈가 25일 창원외로 가서 4위 NC 다이노스를 상대한다.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5위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한다.

KIA는 21일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후반기를 열었다. 이 경기에서 산체스가 앞선 데뷔전에 이어 다시 한번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위력적인 변화구 실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로하스, 허경민과의 승부에서 피홈런을 남겼다. 불펜진 난조도 겹치면서 산체스는 6.2이닝 4실점의 패전 투수가 됐다.

KIA 타자들은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를 상대로 6개의 안타도 만들어냈지만 3회말 2사 만루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오지 못하고, 7회초 2사 만루에서 박준영에게 싹쓸이 3루타를 내주면서 두산의 10연승 제물이 됐다. 이날 패배로 KIA는 6위 자리를 KT 위즈에 내줬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패배는 남겼지만 타자들의 움직임은 괜찮았다. 하지만 올스타 브레이크에 이어 비로 22-23일 경기를 연달아 쉬면서 '감'이 숙제가 됐다. 타석은 물론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중요하다.

투수들도 넉넉한 휴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선발진의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초반 경기 감각이 승부를 좌우할 키가 될 전망이다.

KIA는 간절하게 하늘을 올려보게 됐다. 지난 주 두 경기가 연속 우천 취소되는 등 벌써 15경기를 비로 치르지는 못했다.

KIA는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77경기를 소화하는데 그쳤다.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기용

4위 NC 다이노스 상대 원정
5위 롯데 자이언츠와 홈경기
가장 적은 77경기 소화 그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리그 중단 없이 강행군 '변수'

하이로즈와는 12경기 차가 난다.

시즌 초반에 내린 비는 KIA에 반가운 비였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있었던 만큼 완전체로 후반 싸움을 하겠다는 반가운 계산이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경기가 취소되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시즌 막판 상대가 느긋하게 경기를 풀어갈 때 KIA는 실 틈 없는 강행군을 펼칠 수도 있다. 가을에 리그 중단 없이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진행되는 만큼 변수가 더 늘었다. 당장 이번 주 경기 감각도 걱정이다.

예측불허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열한 순위 싸움 전면에 토마스 파노니가 선다.

22일 두산전 선발을 준비했던 파노니는 비로 등판이 밀리면서 25일 시즌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하게 됐다.

손 앤더슨의 대체 선수로 팀에 재 합류한 파노니는 지난 12일 삼성과의 경기를 통해서 KBO리그 복귀전을 치렀다.

시차 적응 등의 문제로 첫 등판에서는 매서움이 떨어졌다. 파노니는 이날 7구를 던지면서 4이닝 4피안타 1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두 번째 등판인 만큼 파노니는 투구수를 올려 '이닝'에 집중하게 된다. 전반기 KIA의 고인자, 후



시즌 중반 KIA에 재합류한 토마스 파노니가 25일 NC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서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반기 숙제인 '이닝'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 만큼 파노니의 시작이 중요하다.

파노니에 이어 투중 좌완 양현종-이외리-윤영철

이 후반기 첫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좌완 선발진의 후반기 첫 성적에 쏠리는 시선, 파노니를 시작으로 좌완 선발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21일 후반기 첫

경기에 출격했던 유일한 우완 선발 산체스의 투입 시점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콜롬비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한국시간) 호주 시드니 라이카트 오벌에서 훈련을 시작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팀, 대한민국이 ‘톱’이다”



콜린 벨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감독이 조별리그 1차전 콜롬비아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한국시간)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11시 콜롬비아와 첫 경기

“이전에 이루지 못한 일 달성할 것”



“우리 여자팀은 ‘톱’이라고 생각한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첫 경기를 하루 앞둔 콜린 벨 감독은 24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훌륭한 여자 대표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우리 성공적으로 잘 해왔고 긴밀히 연습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팀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며 “선수들이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달성하도록 돕고자 한다. 우리 더 할 수 있다. 잠재력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2019년 부임한 벨 감독은 “고강도 훈련”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전술, 전략에 앞서 체력 등을 손보는 “체질 개선” 작업에 매진해왔다.

2019년 열린 작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3패로 탈락하며 세계와 격차를 느껴

야 했다.

벨 감독은 “우리는 2019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들이 자기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 우리는 서로 아주 오래 대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수가 준비하고 있다. 한국어로는 ‘포기하지 마라’고 한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투지에 불타는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11시 이 경기장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콜롬비아와 1차전을 치른다.

“한국에 계신 국민들에게 뭐든 돌려드리고 싶다”는 벨 감독은 “선수들이 100%를 다 발휘하면 좋겠다. 100% 실력을 발휘하는 게 정말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벨 감독은 “(콜롬비아는) 아주 강한 팀이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기술이 좋은 팀이다. 전술적으로도 유연하고 체력도 좋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김주형, 한국인 첫 ‘디오핀’ 준우승

7언더파 공동 2위 상금 14억원

2002년생 신예 김주형이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디오핀’에서 한국인 최고 성적을 거뒀다.

김주형은 24일(한국시간) 영국 잉글랜드 워털로의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파71·7383야드)에서 끝난 제151회 디오피 챔피언십(총상금 1650만 달러)에서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우승한 브라이언 하먼(미국)과는 6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승 경쟁까지 벌이지는 못했지만,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디오피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윤람(스페인), 제이슨 데이(호주) 등 세계적인 톱 랭커들이 김주형과 함께 공동 2위를 했다.

이 대회에서 종전 한국 선수의 최고 성적은 16년 전인 2007년 최경주의 공동 8위였다. 2007년은 김주형이 만 5세를 갓 넘겼을 때다.

아울러 한국 남자 선수가 메이저 대회 2위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은 2009년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 양용은 우승, 2020년 마스터스 임성재 공동 2위에 이어 이번 대회 김주형이 세 번째다.

만 21세인 김주형은 1976년 세베 바에스테로스(스페인) 이후 47년 만에 브리티시오피에서 2위 이상의 성적을 낸 최연소 선수가 됐다.

2011년 세상을 떠난 바에스테로스는 1957년생으로 1976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할 때 나이는 만

19세였다.

김주형으로서는 지난주 제네시스 스토클랜드오피 공동 6위에 이은 최근 2개 대회 연속 ‘톱10’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 준우승 상금 108만4625 달러(약 13억9000만원)를 더해 2022-2023시즌 PGA 투어에서 번 상금이 총 562만4032 달러로 한국 돈 7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특히 김주형은 이번 대회 1라운드를 마친 뒤 숙소에서 미끄러져 발목에 멍이 들 정도로 다친 악조건에서도 메이저 대회 준우승 성과를 냈다.

김주형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처럼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 발목은 괜찮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제보다는 상태가 좋았다”며 “이런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 통증을 잊고 경기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US오피에 이어 디오피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낸 것에 대해 그는 “매우 만족스럽다”며 “(투어에 데뷔한) 작년에 비해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김주형은 “사실 2, 3라운드에 (발목 통증 때문에) 기권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평소 꿈꾸던 이런 큰 무대에서 경기하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두 추격을 의식해 경기 도중 리더보드를 봤느냐”는 물음에 “사실 (우승자인) 하먼이 5타를 앞선 상황에서 4라운드를 시작했고, 게다가 타수까지 줄이면 추격하기 쉽지 않다”며 “나로서는 좋은 경기를 해서 자신감을 얻는 데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마르상, 수영 개인혼영 400m 4분02초50 ‘세계新’

수영선수권... 펠프스 시상 축하

레옹 마르상(21·프랑스)이 터치 패드를 찍는 순간, 중계석에 앉아 있던 ‘황제’ 마이클 펠프스(38·미국)가 기립해 손뼉을 쳤다.

종전 기록 보유자가 새로운 세계기록 탄생을 축하하는 보기 드문 세리머니였다.

마르상은 23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02초50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지난해 부다페스트에서 4분04초28의 대회 기록으로 우승했던, 마르상은 올해 후쿠오카에서는 세계기록을 바꿔놓으며 세계선수권 2연패에 성공했다.

남자 개인혼영 200m 디펜딩 챔피언인 마르상

은 ‘2개 종목 2연패’를 목표로 후쿠오카에 입성했고, 이미 절반의 목표를 달성했다.

개인혼영 400m에서는 ‘황제’ 펠프스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 종목 종전 세계기록은 펠프스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작성한 4분03초84다.

펠프스가 기록 달성에 유리한 ‘전신 수영복’을 입고 세운 기록을, 마르상이 15년 만에 1초34나 당겼다. 전신 수영복 착용은 2010년 1월부터 금지됐다.

개인혼영 400m에서 처음으로 4분03초 벽을 깬 선수로 기록된 마르상은 우승 상금 2만달러(약 2578만원)와 세계신기록 상금 3만달러를 동시에 챙겼다.

펠프스는 시상자로 나서 마르상에게 직접 메달을 건넸다. /연합뉴스